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6000개 기업 통관 빨라진다

산업부 ‘韓-中 FTA 공동위원회’ 국내기업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 최신 규정 현행화 화장품 등 무역기술장벽 현안 점검 문화콘텐츠, 서비스·투자 협상 속도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이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 삼아 우리 수출기업 6000여 곳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만연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대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통상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 합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불일치도 해소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존 ‘HS 2012’에서 최신 ‘HS 2022’ 규정으로 현행화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의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사라져 통관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지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 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와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

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열린 별도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중국 북부 최대 물류 거점인 텐진항을 방문해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통한 K-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중국의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中關村)과 텐진 현지 진출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중국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美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953MW 급... 약 5800만달러 투입 30년간 年 4.7억달러 매출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나일스에 이어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소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북미 민간발전사업(IPP)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폭증으로 미 전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최대 전력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및 워런 지역에 953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총 12억 5800만 달러(약 1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남부발전, 지멘스 에너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 D)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30년간 매년 4.7억 달러의 안정적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왼쪽 일곱 번째)이 현지시간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 현장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준공식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미국 인구의 20%인 약 65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을 통해 오하이오주 인근 약 100만 가구에 공급된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GM자동차가 합작 설립한 배터리 제조사인 ‘얼티엄셀즈’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핵심 에너지 센터에도 전력이 공급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트럼볼 사업 준공을 통해 기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북미 발전사업 전 주기에 걸친 사업 수행 역량을 재확인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지역의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파트너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트럼볼 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은 북미 시장에서 남부발전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미주 시장에서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귀농·귀어 가구 늘고, 도시 복귀는 줄고

데이터처 ‘지난해 귀농어·귀촌통계’ 귀촌은 감소세... 전년비 0.5% ↓

주춤하던 ‘귀농·귀어’ 가구수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했다. 귀농인 가운데 5년 이내에 도시로 되돌아간 사람의 비중도 줄었다. 그러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어촌 이주를 가리키는 ‘귀촌’의 사례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통계’에 따르면 올해 귀농가구 수는 8735개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1617명으로 8.5% 늘었다. 귀농가구의 77.8%는 1인 가구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8세로 전년보다 0.2세 많아졌다. 연령대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1%를 차지해 50~60대 비중이 66.4%에 달했다.

귀농인은 9134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156명(67.4%), 다른 직업을 병행하

는 겸업 귀농인은 2978명(32.6%)이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시군은 전남 고흥(153명), 경북 의성(138명), 전남 신안(138명), 경북 상주(125명), 전남 나주(121명) 순이었다.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21.0%), 서울(14.2%), 광주(8.2%)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내 도시로 다시 이주한 귀농인 수는 1969명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귀어가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귀어가구는 586가구로 전년보다 5.6% 증가했고 귀어가구원은 753명으로 5.8% 늘었다. 귀어인은 615명으로 5.1% 늘었다.

반면 귀촌은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농어촌에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 직전에는 농어촌 지역 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지난해 귀촌가구는 31만6977가구로 전년보다 0.5% 감소했고 귀촌 인구도 41만 3464명으로 2.2%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양진흥공사, 장애인 고용·취약계층 환경개선 지원

굿윌스토어·초록우산에 기부금 전달 노후주택 가정 찾아 주거환경 개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23일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굿윌스토어 밀알부산점미점을 찾아 기부금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해진공이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기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기부금은 굿윌스토어에 기부되는 물품의 원활한 수거를 비롯해 운송을 위한 담차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부 물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공사는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물품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 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은 상품화 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가운데)이 굿윌스토어 밀알 부산점미점을 찾아, 재판매용으로 전달된 옷들을 살펴보고 있다.

정을 거쳐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재판매출 예정이다.

같은 날 초록우산에는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안인접 지역의 노후 주택은 해양성 기후 등으로 곰팡이, 습기, 해충 등 주거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해진공이 전달한 기부금은 부산에 있는 다수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여름철 방역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된다.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비씨(KOBC) 바다사랑봉사대’는 이날 사업 대상 가구 중 부산 사하구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 해당 가구는 십수 년 전 생계를 위해 선박에 승선했다가 해상에서 실종돼, 사망 처리된 가구의 유가족이다.

해진공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 해양지원기관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해양인과 그 가족의 삶을 돌보는 것 또한 사회적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번 지원에 나섰다. 바다 사랑봉사대는 도매지 교체와 외벽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제 유가·가스 일제히 하락... 진정 국면

호르무즈 통항 따른 원유 공급 기대 전일비 브렌트유 0.8%, WTI 0.6% ↓

중동전쟁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가 25일 발표한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은 중동발 공급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전일 대비 하락했다. 로이터도 이날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원유·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5일 08시 기준 국제 유가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Brent)유는 배럴당 73.14달러로 전일 대비 0.8% 하락했으며,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전일 대비 0.6% 내린

69.92달러를 기록하며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두바이(Dubai)유 또한 24일 장미감 기준 전일 대비 무려 6.2% 급락한 67.29달러로 집계됐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는 각각 전쟁 이전(2월 27일) 대비 0.9%, 4.3% 높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스 가격도 하락 흐름이다. 아시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지표인 JKM 가격은 전일 대비 1.2% 하락한 백만Btu당 15.52달러, 유럽의 TTF 가스 가격은 1.9% 떨어질 13.77달러로 마감했다. 다만 미국의 헨리허브(HH) 가스 가격은 2.9% 소폭 상승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소폭 하락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세종=한용수 기자